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공동의회 :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2/10)	다음 주(2/17)	2/24
기 도	주일오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오숙현 성도
성경 봉독		오숙현 성도	이미정 성도	이강진 서리집사
식사 준비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정리		오숙현 순	이윤경 순	이승재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6호 2019.2.10.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49장, 찬송가 205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05편 20-45절	오	숙	현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29:13-16	김	윤	기 목사
[아아! 주님의 백성이여]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397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헌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박	철	호 서리집사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황근하 성도
 본 문: 요 5:31-47
 설 교: 오직 성경(3)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6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삼상 18:17-30
 설 교: 평생에 대적이 되니라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 1시 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 1시 00분
신앙도서강독	주일 오후 모임 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6주일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으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아무도 죄인인 사람 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 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으로써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 말씀 요약: 사 29:13-16, 아아! 주님의 백성이여

1.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웃시야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통치가 끝나고 히스기야의 통치에 이르러도 그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2. 곤경에 처한 근본원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 아하스 왕 말기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왕하 17:19,20).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사 29:1; 29:15; 30:1; 31:1). 주님이 보는 유다의 현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상태였습니다(13절). 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15절; 창 3:8).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며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16절). 자신들의 종교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유다의 곤경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3.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사용하여, 그런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막 7:6-8). 바리새인들의 헛된 경배가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십니다(막 7:11). 이것은 최악에 빠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막 7:15,16,20-23).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경건으로 자신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죄가 그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죄의 특성을 알고, 인간의 무능함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참고 막 7:24-30).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롬 9:30,3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믿음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삽시다.